

# 가정폭력 피해자와 행위자에 대한 사회복지실천과 개입

주 소 희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1010jshee@kbtus.ac.kr

## I. 들어가는 말

가정폭력은 일반폭력과는 달리 반복적 습관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가족해체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등 가족구성원뿐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자녀의 경우, 비행에 빠질 확률이 높아 청소년범죄의 증가요인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sup>1)</sup> 더욱 폭력성향이 세대로 대물림되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타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함으로써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우자 폭력발생률이 미국이나 일본, 홍콩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들 대부분은 결혼 후 1년 이내에 처음 구타를

---

1) 김재엽, “한국인의 가족폭력 실태와 양상: 가정폭력 대응전략수립을 위한 대토론,” (서울: 보건복지부, 2002), 11.

당했으며, 80.8%가 한 달에 1회 이상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폭력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폭력에 노출된 여성이 2% 이상으로 추정되어 사회적 도움이 요청되는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피해여성의 경우 대부분 첫 번째 구타 후 폭력관계를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수년간 혹은 수십 년 동안 만성적 위기 속에 살아간다. 이렇듯 만성적 위기의 결과로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자살충동, 약물중독, 공황장애, 불안증 등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가정폭력피해자들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부분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며 폭력주기의 순환이 거듭될수록 위기가 반복되고 일상화되는 경향이 있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은 위기사건을 경험하며, 폭력사건으로 인해 고통이나 불안이 심각하여 불균형 상태에 이르게 되어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만성적 위험상황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일찍이 가정에서의 폭력행동을 사회문제로 부각시키고 그 문제에 대한 전문적 개입방법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특히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주된 기능을 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가정폭력의 접근방법이 1980년대에 가서 사회적 수준에서의 해결책이 모색되고, 1990년도 말에 이르러 국가개입에 의한 대응방식이 도입되었다.

이는 가정폭력 문제가 특히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로 여겨지던 시각에서, 사회적인 공공 문제이며 범죄행위로 보아야 하는 커다란 시각의 전환을 가져온 것이다. 이런 시각의 변화는 모든 지역사회 일원은 가정폭력의 사실을 아는 즉시 신고해야 하며, 피해자는 보호받고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며 가해자는 치료 프로그램의 참

---

2) Ibid., 7.

여를 통해 폭력의 사이클을 멈출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함의를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에서는 여전히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건이 사적영역으로 치부되고 있고 가족구성원들은 내적사건을 공론화하여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서 사회복지분야에서의 개입 또한 상담소나 쉼터를 중심으로 한정되어 왔다. 더욱이 가정폭력뿐 아니라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신건강,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누구든지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폭력의 피해자 및 행위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는 합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가정폭력의 형태 중에서 배우자 학대의 특성과 그에 따르는 심리사회적 문제 그리고 학대과정의 역동성과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한 특성을 제시한다. 나아가 학대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정(assessment)기준과 위기사정(risk assessment)을 제시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일선 현장에서 학대 피해자를 발견하고 효과적인 위기개입을 확고히 담당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 Ⅱ. 본론

### 1.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내 폭력이 어떻게 조사 연구되며, 누가 개입을 받아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정의에 달려 있다. 그동안 가정내 폭력에 대한 정의는 아동에 대한 학대, 가정폭력, 노인학대로 나뉘어 다소 다르게 발전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계획적,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해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은 그 가해자와 피

해자에 따라 부부폭력,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 자녀의 부모폭력, 형제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고, 폭력의 형태에 따라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유기, 성학대로 구분된다.<sup>3)</sup> 특히 가정폭력을 정의할 때 폭력 관계상의 맥락, 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기능, 그리고 행위자의 구체적 행동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측면이다. 가정폭력행위자가 왜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통제하기 위해 가 매우 중요하며,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 가정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았다.<sup>4)</sup>

본 연구에서는 지면의 한계 상 임상적인 정의로서 가정폭력을 현재 결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간의 학대로 정의를 내리고 접근하고자 한다.

## 2. 배우자 학대의 정의

배우자 학대란 배우자에 대한 피해의 지속적인 패턴을 나타내거나 또 다른 피해의 위험을 나타내는 한 사건 또는 여러 사건들을 의미한다. 배우자 학대 사건임을 알려주는 척도들은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한다. 몹시 꾸짖고 비난하는 의도적인 행위들 또는 배우자의 심리적 안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학대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패턴, 강압적인 통제 그리고/또는 공포로 몰아넣는 행동을 포함한 위협적인 행동(예를 들면, 자녀, 애완동물, 또는 소유물에 대한 위협, 배우자를 통제하려는 목적하에 경제적 자산들을 제한하거나 손대지 못하게 하는 패턴, 배우자를 통제하려는 목적하에 의도적인 협박을 하는 패턴, 배우자를 가족, 친구 또는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부터 고립시키거나,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의도적 만성적으로 방해하고, 무기를 사용하거나 무기사용 없이 이루어지는 신체적 폭행),<sup>5)</sup> 또는 신체적 폭력

3) 김봉화, 김영미, “가정폭력방지 정책의 현황과 효과성측정을 위한 시론적 연구,” 2009년, 하계학술대회, 한국정책학회, 3.

4) Ann Ganley and Schechter Susan, *Domestic Violence: A National Curriculum for Children's Protective Services*, (San Francisco: Family Violence Prevention Fund, 1995), Alan Kemp, 『가족학대-가족폭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연구회 역 (서울: 나남출판, 2001), 321에서 재인용.

5) 강경호, 『가정폭력의 위기와 상담』 (서울: 한사랑가족상담연구소, 2003), 128.

의 위협,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 또는 스토킹과 결합을 이룬 다른 행동, 성폭력, 성폭력의 위협, 또는 학대 행위자나 다른 사람과의 원하지 않는 성행위에 가담하도록 배우자를 강압하는 것, 배우자가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 정신적/신체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가 적절한 사회적, 정신적 또는 의료적 서비스를 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함으로써 의도적인 방임을 하는 것들을 포함한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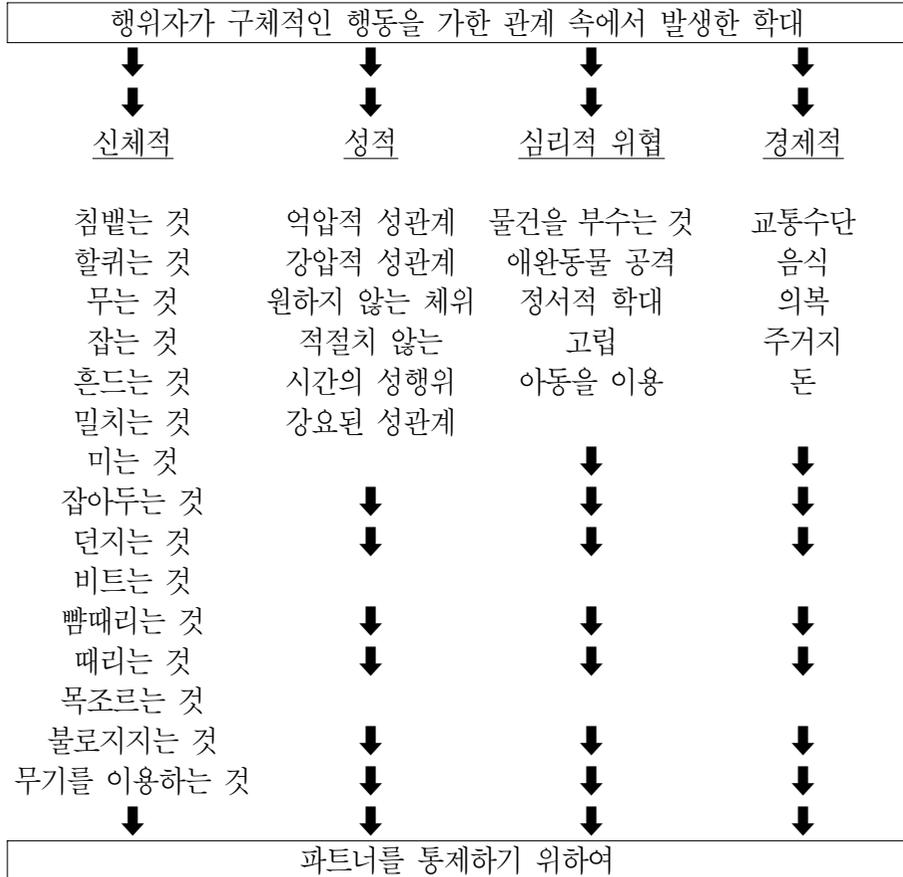
이상 나열된 정의를 통합해 보면, 배우자 학대는 정서적, 신체적, 성적인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나타나며, 특히 그 학대행위의 지속되는 패턴이 있는가, 또는 패턴이 없더라도 그 학대행위로 인한 위협의 정도가 높은가 하는 것이 학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되며, 학대의도가 배우자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학대의 역동(dynamic of violence)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행위자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 3. 배우자 학대의 유형 및 증상

배우자 학대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학대가 몇 가지로 유형화됨을 볼 수 있다.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 배우자 방임의 경우 정서적 학대의 한 측면으로 보기도 하지만 따로 분리하여 보는 경우도 있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양쪽 배우자 모두가 통제의 목적하에 서로에게 폭력, 공포, 위협 등을 사용하는 상호학대(mutual abuse)가 존재하는 데, 이때 반드시 한 쪽 배우자가 폭력하에서 자신이나 가족성원을 보호하고자 또는 학대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고자 자기방어를 위해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와 잘 구분하여야 한다. 특히 학대의 경우 일련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심리정서학대와 성적인 학대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갠리(Ganley)와 스케치터(Schechter)의 학대에 관한 모델에서 제시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학대 및 경제적학대의 종류와 그 연속적 특징을

6) Ibid., 127.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7)



<그림1> 학대에 관한 모델

한편, 배우자 학대의 증상은 신체적 손상과 학대의 심각성에 따라 약한 증상, 중간증상, 심한증상으로 나눌 수 있다. 약한 증상은 언어적 위협, 약한 신체적 손상 혹은 의료적 치료가 필요치 않을 정도를 말한다. 중간증상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던지는 것, 밀거나 잡거나 밀치는 것, 뺨을 때리는 것, 차거나 물거나 주먹으로 치는 등의 행위로 신체적 손상을 입어 단기간

7) Alan Kemp, 『가족학대·가족폭력』, 324.

의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심한증상의 경우 목을 조르거나 달아 메는 것, 심하게 맞은 것, 총이나 칼로 위협하는 것, 칼로 자르거나 던지는 것, 자동차로 치거나 치겠다고 위협하는 것,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나 죽이는 것과 같은 행위로 인해 장기간의 의료적 치료, 입원 혹은 안전을 위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폭력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위기개입과 같은 적절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입되어야 한다.

#### 4. 배우자 학대의 역동

##### 1) 힘과 통제의 역동(The Power and Control Dynamics)

배우자 학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과 예방을 위하여 왜 학대 행위자가 폭력 및 기타 학대행위를 사용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가정폭력의 정의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듯이, 행위자는 배우자에 대한 통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학대행동을 사용한다. 이를 힘과 통제의 역동(The Power and Control Dynamics)이라고 보고<sup>8)</sup> 가정폭력의 역동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행위자가 배우자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강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는 전제에 근거한다. 이러한 전략들은 전체적인 부부 관계에 영향을 주며 부부 관계를 왜곡시킨다. 행위자는 배우자의 사고·감정·행동·욕구 등을 지배하며, 이들은 신체적, 심리적, 성적 지배 또는 종종 폭력을 이용함으로써 배우자의 순종을 강요한다. 이 폭력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선택이며 특정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학대행위자는 배우자에 대한 통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학대행동을 사용하는데 학대 행동의 목표가 힘과 통제(Power and control)인 것이다.<sup>9)</sup> 학대행위자가 파트너에게 힘과 통제를 행사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살펴보면, 위협(Intimidation)적인 행동이나 제스처를 사용해서 배우자를 통제한다. 말다툼 후에 배우자 앞에서 무기를 손질하여 통제권

---

8) E. Pence and M. Paymar, *Education Groups for Men who Batter*,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1993), 102; Alan Kemp, 「가족학대·가족폭력」, 367.

9) Ibid.

을 획득하려는 경향이 있고 강아지 등 가족의 애완동물을 고의로 해치는 행동들을 한다. 피해자가 누구를 만나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를 통제하고 집 밖의 활동을 차단하여 결과적으로 외부로부터 고립(Isolation)시킨다. 배우자에게 만일 이 학대 상황을 신고하면 자녀들을 빼앗기게 되고, 직장을 잃고, 정부에서 받은 주거도 잃을 것이라는 등을 얘기하며, 칼, 권총 등으로 위협(Threat)하기도 한다.<sup>10)</sup> 배우자에게 자신이 끝까지 추적하여 죽일 것이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한다. 학대를 가볍게 여겨 그것을 심각하게 보지 않도록 상황을 최소화(Minimizing)시키고, 자신의 행동을 부정(Denying)하고 폭력을 배우자의 행동, 직장문제,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등의 모든 일의 원인은 피해자 탓으로 돌려 상대를 비난(Blaming)한다. 배우자의 걱정(혹은 관심)을 하찮게 여기고 배우자를 무시하며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심리전을 사용하여 중요한 얘기를 하고 나서 자신이 얘기했다는 것을 부정하며, 자살을 하겠다고 위협한다. 남성의 권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하녀처럼 대하거나, 성주처럼 행동하고, 남여의 역할을 자신이 결정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피해자를 통제한다. 또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하거나 배우자가 신용카드나 은행 현금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만들며 배우자에게 자신의 월급이나 가족이 쓸 수 있는 자금의 양 등을 알지 못하게 등의 경제적 학대(Economic Abuse)를 하기도 한다. 배우자를 감시하는데 자녀들을 이용(Using Children)하고 아이들에게 말을 전달케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녀들을 해칠 수 있다고 위협한다.<sup>11)</sup>

이러한 힘과 통제의 전략들은 종종 신체적, 성적 폭력의 단일 또는 다면적인 에피소드로 나타나기도 한다. 가정폭력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인터뷰할 때, 사건에 대한 토의를 꺼려하거나, 퍼져 있는 학대의 중요한 신호를 최소화하려는 어떠한 것에도 민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대 행위자나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족으로부터 지속되어온 학대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10) Paul Hegstrom, 『가정폭력 치유교과서』, 이남중 역 (서울: 글샘 2008), 47.

11) Ibid.

있다. 따라서 개입의 목표는 학대행동이 중지되어 평등(Equality)의 기초 하에 건강한 관계를 갖도록 하는데 있다.

## 2) 폭력의 사이클(The Cycle of Violence)

폭력의 사이클은 가정폭력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 따라서 그 사이클을 이해함으로써 폭력을 중단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 르노어 워커(Lenore Walker)는 폭력의 사이클을 세 가지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워커는 첫 단계를 긴장고조 및 긴장 형성단계(Tension-building)로 모든 사람들이 ‘살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긴장감을 느끼는 단계라고 설명한다. 피해자는 과도한 폭력을 피하기 위해 행위자를 어르거나 달래며 그가 희망하는 대로 순종한다. 갈등을 유발할 만한 일들이 있으면 그 문제를 피하는 방법을 찾아서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해놓는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직면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협이나 더 큰 폭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참으려고 애쓴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은 행위자가 더 큰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학대는 참는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는 행위자의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행위자는 어떤 수준에서는 그의 행동이 집 밖에서는 용서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배우자가 떠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학대행동을 통해 배우자가 떠나지 못하도록 통제하려고 시도한다.<sup>12)</sup> 이때가 되면 가해자는 불안해지고 과도하게 소유욕을 보이거나 강한 질투로 인해 더욱 상대를 통제하려는 행동을 하게 된다.

긴장이 최고치에 달하면 폭발 혹은 급성단계(Explosion)로 진행된다. 이 두 번째 단계동안 행위자나 피해자 모두 통제능력을 상실하는 양상을 보인다.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본 떼를 보여주기 위해 열중’하는 것처럼 행동한

12) Lenore E. Walker, *The Battered Women*, (New York: Harper and Row, 1979), 247; Paul Hegstrom, 『가정폭력 치유교과서』, 75-7; Alan Kemp, 『가족학대·가족폭력』, 342-3; Grand L. Martin, 『가정폭력과 학대』, 김연 역 (서울: 두란노, 2002), 48-50.

다. 두 번째 단계에서 피해자는 갈등을 증폭시켜서라도 빨리 이 상황을 끝내버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무섭고 두려운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행위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 피해자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자신이 행위자에게 대항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을 잘 기억한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그 상황을 잘 처리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폭력을 당한 후 해리현상을 경험한다. 공격이 끝나면 두 사람 모두 일어난 일에 대해 당황해하고 쇼크를 받는다. 경찰을 부르는 단계는 주로 급성단계에서 일어난다. 피해여성들은 경찰이 가고 난 다음에 남편의 폭력이 더 심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 행위자에게 충성심을 보이기도 한다. 폭발이 일어나면 초기단계에 쌓였던 긴장은 완화된다. 긴장이 해소되면 행위자는 자신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에게 다시 친절해지고 가족을 사랑하게 된다. 행위자는 슬픔을 표현하고, 용서를 구하고 아주 진지해지기도 한다. 이 단계가 마지막 단계인 신혼단계(Honeymoon phase) 혹은 사랑의 참회단계이다. 적어도 폭력이 재발할 때까지 긴장이 풀어진다. 양쪽 모두에게 이번 일은 모두 지나간 일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또 한다. 때로 행위자는 그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아내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죄의식을 느끼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기도 한다. 이론 과정에서 내 배우자는 학대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재확인시키는 “부정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참회의 단계는 관계 유지를 강화시킨다.<sup>13)</sup>

이 폭력의 사이클이 모든 사례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폭력은 반복되면서 그 사이클은 더더욱 길어지고 폭력은 갈수록 더 강화되고 심화된다.

폭력의 사이클은 힘과 통제의 관계(근본적인 학대관계)에서 일어난다. 배우자가 맞거나 여러 번 폭력적인 상황을 당하게 되면, 피해자는 행위자가 원하

13) 강경호, 『가정폭력의 위기와 상담』, 35.

는 것을 받아들이고 따르게 된다. 피해자는 패배한 것처럼 혹은 우울해 보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학대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 학대의 심각성이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체적, 성적 학대는 결혼생활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폭력피해의 영향은 지속적이며, 만성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 사회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가정폭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 5. 배우자 학대로 야기되는 심리사회적 문제

### 1) 피해자에 미치는 영향

매 맞는 여성 증후군(battered women syndrome)은 ‘피할 수 없는 신체 공격에 대한 두려움,’ ‘예상하지 못한 신체적 공격성’ 등의 두 가지 핵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증후군은 한사람의 파트너에 의해 반복적으로 희생됨으로써 나타난다.<sup>14)</sup> 피해여성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낮은 자존감, 구타관계에 대한 신화를 믿는 것, 전통주의자가 되는 것(전통적 가족 가치관과 성역할의 편견), 구타자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것, 공포나 분노감을 부인하면서 죄의식으로 고통 받는 것, 피동적인 것 같지만 더 이상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죽는 위험까지를 포함해서 환경을 조작하는 것, 심리 신체적 증상 호소와 더불어 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갖는 것, 친근감을 갖기 위해 성관계를 이용하는 것, 자신 이외에는 누구도 자신의 상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믿는 것 등이다.<sup>15)</sup> 이렇듯 폭력의 발생이 빈번해질수록 피해여성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리사회적으로 ‘갇힌 상태’에서 살아간다.

### 2)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험하는 정신건강 문제

가정폭력의 신체적인 결과가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

---

14) Robert T. Ammerman and Michel Hersen, 『가족폭력: 사정과 실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원 편 (서울: 양서원, 2003), 74.

15) Alan Kemp, 『가족학대·가족폭력』, 336.

가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대받은 여성들은 심리적인 영향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글리슨(Gleason)은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학대받은 여성들에게서 주요 우울증의 높은 발병률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학대받은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우울증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학대의 빈도와 심각성, 다른 스트레스 요인들, 자신을 돌보는 능력이 제시되었으며, 이들 요인들은 정신질환의 병력이나 인구학적, 문화적, 그리고 어린 시절의 특성보다도 더 강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sup>16)</sup> 국내의 경우 김연희 외의 연구에서 가정폭력쉼터에 입소중인 116명의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반수이상 우울을 호소하였고, ‘자주 죽고 싶다’는 응답이 78.4%로 자살생각이 높음을 확인하였다.<sup>17)</sup> 또한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한 남편과 살아가는 피해여성의 재폭력 피해경험은 스트레스와 사회적 활동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up>18)</sup>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기관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는 가정폭력 피해의 가장 빈도 높은 결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다른 여성 집단보다도 쉼터에 머물고 있는 학대 피해여성들에게서 높은 비율이 제시되어 왔다.<sup>19)</sup>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이 가정폭력의 경험 이후에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증상들을 살펴보면, 외상적 사건의 재경험을 경험한다. 즉 악몽, 환각이 재현(flashbacks)되고, 회피와 감각의 마비(numbing)로 인해 외상적 사건에 관한 생각과 이를 상기시키는 경험을 회피하거나 오

16) W. J. Gleason, "Mental Disorders in Battered Women: An Empirical Study," *Violence and Victims*, vol. 8, no. 1 (1993): 63.

17) 김연희 외 2인, "쉼터 입소여성의 배우자에 의한 폭력피해실태와 정신건강,"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2권 1호 (2008): 45.

18) 김재엽 외 3인,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자의 재폭력이 피해자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 연구』, 19권 (2008): 336.

19) Javquelyn C. Campbell and Lewandowski L. A, "Mental and Physical Health Effect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vol. 20 (1997): 370; 김재엽,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이수이후 남편의 재폭력과 피해여성의 정신건강 실태," 『한국사회복지 조사연구』, 19권 2호 (2011): 8-9; 김선아 외 4인, "가정폭력으로 쉼터에 입소한 여성의 피해실태와 정신건강," 『대한간호학회지』, 33권 7호 (2003): 981-2.

히려 심하게 반응하거나 깜짝깜짝 놀라는 증상을 보인다. 수면과 집중의 어려움, 과장된 놀란 반응 등이 있다.<sup>20)</sup>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에 있는 많은 여성들은 두통, 위장문제, 고혈압, 알레르기 그리고 심장문제 같은 신체문제와 신체화증상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행위자의 특성

사실상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의 발생과 재발을 줄이고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외의 폭력의 주체인 행위자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여 그들을 위한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의 주요인이 행위자에게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에 따라, 최근의 연구들은 폭력 남성들을 특성별로 세분화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sup>21)</sup> 이러한 유형화 작업은 가정폭력이 진행되는 방식과 폭력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유형의 폭력 행위자에게 보다 적합한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시키기 위한 밑바탕이 된다. 곤달프(Gondolf)는 쉼터 거주여성 525명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유형으로 행위자를 구분하였다. 사회병질적(Sociopathic)집단은 가장 심하게 상해를 입히는 유형으로 가정밖에서도 폭력을 행사하고, 알코올, 약물, 절도 등 다양한 원인에 따른 체포경력을 가지고 있다. 반사회적(Antisocial)집단은 신체적 언어적으로 심한 학대를 행하지만 법적경력을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형적(typical)집단은 언어 신체 성적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낮고, 범죄로 인해 구속되는 일이 적으며 폭력 후 부인에게 용서를 구한다.<sup>22)</sup> 한편, 소운더(Saunders)는 다양한 행동 및 통제변인을 사용하여 182명의 남성들에게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

20) Mary P. Koss, "The Women's Mental Health Research Agenda: Violence against Women," *American Psychologist*, vol. 45, no. 2 (1990): 379.

21) 장희숙, 김예성, "가정폭력행위자 유형연구: 이론에 따른 세가지 하위유형 검증," 『한국사회복지학회』, 56권 3호 (2004): 304.

22) Edward W. Gondolf, Who are These Guy? Toward a Behavioral Typology of Batterers." *Violence and Victims*, 3 (1988): 187-203, 장희숙, 김예성, "가정폭력행위자 유형연구," 306에서 재인용.

군집은 가족에게만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family only)으로 이들은 폭력의 정도가 낮고 심리적 학대, 정신병리, 분노, 우울, 질투의 수준이 낮으며 여성에 대한 태도가 비교적 긍정적이고 아내외의 사람에게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둘째는 정서적으로 폭발하기 쉬운 유형(emotionally volatile)으로 신체적인 폭력정도는 중간이나 심리적인 학대를 빈번히 사용하고 분노, 우울, 질투심이 높으며, 부부관계만족도가 낮으며, 자살충동을 자주 일으킨다. 셋째는 일반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generally violent) 남성들이다. 이들은 가정 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알코올 남용이나 폭력으로 인한 구속경험이 많다. 부부갈등, 분노와 우울의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가장보수적인 태도를 지니고, 폭력의 심각성이 가장 높다.<sup>23)</sup> 물론 이들의 연구가 서로 다른 군집을 사용하고 있어 알려주는 정보가 산발적이고 일관성이 적으나 어느 정도 구분되는 행위자의 유형을 통해 개입의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 7. 배우자 학대에서의 위기개입

### 1) 위기사정(Risk Assessment)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처한 위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손상을 동반함으로써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긴급한 상황으로 피해여성들이 지속적 위험 속에 가해자와 함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가정폭력이 장기화되는 형태를 나타내면서 피해여성의 스트레스와 외상의 기간이 확대되고 지속된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위기상태는 다음의 4가지 경우에 급속하게 발생한다. 첫째, 희생자는 촉진적이고 위험한 사건을 경험하고 둘째, 이러한 사건은 피해여성에게 의해 안전의 위협이 된다고 인식되며, 그 결과 긴장과 고통이 증가한다. 셋째, 피해여성들은 일상적 대처방법에 의해 그 상황을 해결하려 시도하나 실패하고, 마지

23) Danial G. Saunder, "A Typology of Men Who Batter Women: Three Types Derived from Cluster Analysis,"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62 (1992): 264-75, 장희숙, 김예성, "가정폭력행위자 유형연구," 307에서 재인용.

막으로 정서적 불안과 혼란이 심해지면서 고통이나 괴로움을 견딜 수 없다고 느낀다.<sup>24)</sup>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배우자에 의해 경험되는 폭력의 모든 형태를 정확하게 사정하고 탐색하여 위기사정(risk assessment)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위기개입시 안전계획을 세우기 위해 위기분류사정을 먼저 해야 하며, 이때 여성과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배우자 학대 사건을 확인했을 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정서상태, 행동, 사고패턴 평가, 클라이언트의 자원, 대처기제와 지지체계의 평가, 자살, 타살 잠재성 사정 등과 과 함께, 학대의 종류, 빈도, 심각도 그리고 학대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지 여부와 학대 사건에 기여하는 주된 요인들이 무엇인지, 또 다른 학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부, 이를 방지할 적절한 안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위기 사정시 학대의 정도, 단계, 형태를 분류해내는 데 실패할 경우 부정확하고 비효과적인 안전대책(safety plan)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해자를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은 언제나 민감성과 조심성이 요구된다. 특히 초기에는 심각한 외상을 막기 위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위기사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는 피해자와 함께 구체적인 안전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책이어야 한다.

## 2) 배우자 학대 피해자에 대한 위기개입(Crisis Intervention)

전반적인 위기개입은 가정폭력 학대피해자로 하여금 위기이전의 수준이나 그이상의 자기기능을 회복시켜 주거나 향상시켜주는 것이므로 위기개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첫 단계에서는 위기학대사정에 근거한 가정폭력의 심각성, 상해, 치명성에 대해 사정한 후에 피해자와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피해여성의 경험을 공감하고, 피해자가 생각이나 감정을 환기시키고 자신의 경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를 위한 행동을 취할 때도

24) 이인숙, “가정폭력 상담원의 위기개입기술과 영향요인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7권 (2004): 195.

항상 피해자에게 먼저 물어본 후 취하며, 피해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신체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폭력의 가능성이 없는 위기상황일 때와 폭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위기상황은 구별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다. 즉각적 폭력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우선, 가능한 한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 상황이 가라앉을 때까지 피해자와 아이들은 함께 있도록 한다. 반드시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장소에 있는지 확실히 하며, 가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준다. 즉 경찰, 병원, 학대예방센터, 교회, 쉼터 등을 알려주고, 그 다음날 반드시 사후관리를 한다.<sup>25)</sup>

만약 폭력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상담자 본인과 확인된 또는 잠재된 피해자와 모든 아이들은 안전한 장소로 재빨리 효과적으로 피한다.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력적인 사람과 말을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타협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아이들이 안전한 장소에 있을 때까지 가능하다면 상담자와 함께 있다. 가족이 가능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음날 반드시 사후관리(follow up)한다.

### 3) 안전계획(safety plan) 세우기

위기개입과정에서 신변보호 및 안전에 대한 확보는 우선시 되어야 한다. 안전계획은 폭력의 피해자에게 본인과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예방책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재확인을 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피해자는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안전대책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선택을 인지하게 되고, 종종 학대 상황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어떠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인식이 생기게 된다. 안전대책을 검토함으로써 학대 가정에 머물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부정(denial)이 감소되며, 정기적으로 가족의 상황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기적으로 안전계획은 계속 검토되어 상황에 적합하게 바뀌어나가야 하며, 지속적으로 안전계획을 유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폭력적

25) Grand L. Martin, 『가정폭력과 학대』, 56-8.

인 배우자를 떠나는 것이 매우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보통 일반적인 충고는 “집에서 나가라,” “친구에게로 가라,” “경찰에게 가라”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충고는 적절한 충고가 아니다. 가장 좋은 안전계획은 “당신이 떠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이 안전하게 머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생각하고 계획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전계획의 일부분으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떠나야 할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떠나야 할 목록을 만들어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다. 즉 중요한 전화번호 소지(예: 경찰, 응급전화, 친구, 컴퓨터 등), 폭력을 말할 수 있는 친구, 스폰서 그리고 필요시 경찰에 신고해 줄 사람, 집을 떠나갔을 때 갈 수 있는 장소 4곳 이상, 비상금, 차 열쇠, 옷, 가까운 친구, 친척, 이웃, 중요한 서류 복사본, 전화번호 변경, 새 은행계좌, 자신을 지지해 줄 사람에게 가는 연습,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것과 같은 중요 목록은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sup>26)</sup>

사회복지사나 사례관리자들은 초기상담을 포함한 매회 재발 위험사정 및 근거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사례관리 체계를 통하여 피해자 혹은 행위자의 협조를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재발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 8. 배우자 학대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치료적 개입의 종류

가정폭력을 경험한 당사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서비스가 요구된다. 가정폭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단계도 필요하고 가정폭력이 발생되었다면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안전계획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서비스와 개입과정에서 필요한 개별 및 집단상담의 종류 및 치료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26) 정현숙, 유계숙, 『가족관계』 (서울: 신정, 2001), 490.

## 1) 사회적 서비스

사회적서비스로는 가정폭력피해여성과 그 자녀들을 위한 쉼터와 법률서비스, 응급전화서비스, 경찰지원서비스와 응급실서비스, 자원연결서비스, 가정방문서비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전화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쉼터에서는 피해여성과 그 자녀들에게 폭력 때문에 상실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치료해 주고 안정과 휴식을 제공하며 미래에 대한 새로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위기상황 동안 가족을 즉각적으로 보호하고 자원이 부족하거나 고갈된 피해자를 원조한다. 더 이상 구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의논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에게는 직업훈련이나 생계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한다.<sup>27)</sup> 그러나 현재까지 쉼터는 여성이 귀가했을 때 혹은 남성이 새로운 행동을 배웠을 때 폭력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학대를 당하는 여성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여성들을 위한 포괄적인 법적중재와 도움의 제공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기본이 되는 사회적 서비스로 볼 수 있다. 법적인 서비스는 구타당한 여성이 현재의 관계를 해소하고 떠날 때 법적인 충고를 해주고, 자존감을 돕고, 그들의 죄의식을 처리하도록 돕기 위해 사회사업가·변호사 팀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28)</sup> 위기에 처했을 때 피해자가 긴급전화를 걸어 구호를 요청하거나 장래대책에 대한 상담, 필요한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응급전화서비스의 역할은 위기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1366이 가정폭력방지법 제정과 더불어 설치, 시행되어오고 있다.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적행동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피해자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법적으로 개입하면 행위자가 더 이상의 상해나

27) 조흥식 외 4인,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2003), 262.

28) 권진숙, “배우자학대와 사회사업적 개입,” 1996년, 추계학술대회, 한국정신보건 사회사업학회, 51.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법적개입은 가족이 장기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사실상 스스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법으로 부터의 명령에 의해서가 대부분이다.<sup>29)</sup>

폭행이 일어났을 때 제일먼저 의뢰할 곳이 바로 경찰에 전화 연락하는 것이다. 경찰은 상처를 입은 여성이나 아이를 발견하면 그 원인을 추적할 책임이 경찰에 있어야 되고 구타당한 사건임이 확인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보호하고 안내해 줄 책임이 있다.<sup>30)</sup> 특히 피해자가 연락을 취하게 될 때, 법절차를 대표하는 최초의 사람이 된다. 실제로 경찰이 보고하는 가정폭력사례의 발생건수가 살인, 폭행 혹은 다른 심각한 범죄 숫자를 앞지르고 있다고 보고했다.<sup>31)</sup>

의료영역에서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만나게 되는 곳은 응급실이다. 가정폭력은 골절, 뇌진탕, 장파열, 안구파열, 낙태 등 치명적인 상처를 야기하는 수가 많고 사망에 이르는 수도 있어 응급치료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신체적 상처 외에도 급성정신착란, 해리증상, 전환증상, 공포, 우울, 자살 등 각종 정신증상과 정신신체증상으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다.<sup>32)</sup> 특히 미국의 경우 대도시지역의 병원에서는 의심이 되는 가정폭력사례들을 돕고 환자에게 가정폭력문제와 피해여성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담당 의료사회사업가를 두고 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오면 환자에게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가를 비롯하여 가정폭력을 사정할 수 있는 지침과 표준절차를 많은 병원의 응급실에 마련하고 있다. 응급실에서의 적절한 개입은 전체 개입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sup>33)</sup>

한편, 가정방문 및 중재서비스(Outreach/Advocacy)의 경우 지역사회복지관

29) Grand L. Martin, 「가정폭력과 학대」, 73.

30) 김병주, 「한국의 가정폭력」 (서울: 백산자료원, 2002), 208.

31) 권진숙, “배우자학대와 사회사업적 개입,” 52.

32) 김광일,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서울: 탐구당, 1988), 281.

33) Alan Kemp, 「가족학대 · 가정폭력」, 362.

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잠재적 클라이언트, 숨겨진 클라이언트를 찾아내기도 하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교육하기도 하는 중요한 개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가정폭력 담당사회사업가는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곳으로 의뢰되도록 기관들을 교육해야 한다.

## 2) 치료프로그램의 유형

가정폭력과 같은 역기능적인 주기를 깨뜨리기 위한 한 접근방법이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이다. 치료초기에는 가해자인 남편과 피해자인 아내를 개별적으로 치료하고, 가해자가 일정기간의 치료를 받은 후에 부부치료로 들어간다.<sup>34)</sup> 개별상담의 경우 배우자학대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는 가정폭력 희생자가 단호하게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단호함 훈련과 의식 강화 등의 연계적 치료가 포함되어진다면 개별상담은 가정폭력 피해자나 행위자 모두에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더욱 피해자들의 경우 오랜 구타로 인해 낮은 자존감과 주체성의 상실, 자아의 혼란, 우울 등의 심리, 정신적인 문제뿐 아니라 외상 후 증후군(PTSD) 등의 다양한 문제를 갖게 되어 개별 치료가 사실상 피해자의 심리적인 면을 돕기 위해서는 우선 제공되어야 할 개입방법이다.

부부 및 가족치료의 경우 부부가 함께 살게 될 경우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필요한 개입방법이다. 체계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정폭력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35)</sup> 따라서 가족이 함께 살게 될 때 공동가족치료와 부부치료가 필요하다. 부부치료의 목표는 폭력의 즉각적인 제거, 부부의 분노 상승패턴에 대한 자각과 개입,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이다. 관계상의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유일한 치료모델이 없는 것처럼 부부상담도 배우자학대 치료를 위해 완전한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못한

34) 조흥식 외 4인, 『가족복지학』, 262.

35) 김유숙, 『가족상담』 (서울: 학지사, 2003), 147.

다. 부부치료나 가족치료의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폭력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충분한 자기통제가 가능할 것인가가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피해자나 행위자의 심리 사회적 기능에 달려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집단부부치료 모델을 들 수 있다. 가정폭력 문제의 접근모델 중 집단프로그램의 효과는 술과 약물중독을 위한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매우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집단 상담을 통해 고립을 줄일 뿐 아니라 후에 그들이 가족과 지역에서 거부되어질 때 의지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제공하는 면에 있어서도 효과적이다.<sup>36)</sup> 치료자는 아내 구타를 사회문제로 묘사하고 그들의 경험이 다른 사람의 경험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해 줌으로써 토론을 촉진시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가해자 집단의 경우도 유사한 이유에서 많이 활용된다.

### 3) 집단프로그램의 종류

다양한 집단을 활용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나 가해자들을 도울 수 있다. 가해자 남성을 위한 집단으로는 가해자들의 공격적 성향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소집단 양식을 사용하는 기법 중심의 프로그램이 유용하다. 이 집단에서는 주로 단호함 훈련을 하고 문제해결 기술을 배우며 폭력으로 이끌어지는 감정을 이해하고 탐구한다. 그리고 성역할에 대한 편견, 태도,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대를 탐색하는 기술을 배우며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그 문제가 자기만의 유일한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된다.<sup>37)</sup> 집단은 목표 지향적으로 구조화된 접근법을 사용하여 인지개발기술, 이완훈련, 의식증진, 상호지지 그리고 갈등관리기술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가해자들을 역할극, 토론, 교육, 영화감상 등을 통해 건설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가해자동맹(batter's anonymous)집단은 단주동맹(alcoholic anonymous)과 같이 집단역동과 집단내의 지지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집단은 보조 프로그램으로 자신들이 주 집단에서 배운 기술을 통합하는 기회를 갖게 된

36) 조홍식 외 4인, 『가족복지학』, 265.

37) Grand L. Martin, 『가정폭력과 학대』, 116.

다. 폭력에 대항하는 강한 규범을 확립하고, 문제해결을 계속하며 그들의 지지망을 향상시킨다. 사회사업가가 제공하는 자문과 지지로 먼저 기술을 익힌 집단구성원이 집단을 이끌어간다.<sup>38)</sup>

배우자학대에 관련된 부부를 위하여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고 기술을 쌓도록 돕는 치료접근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부부집단 혹은 혼성집단(couple's group)이 있다. 이 집단의 주목적은 폭력문제의 즉각적인 제거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특히 학습이론과 인지구조 원칙에 근간을 둔 기술훈련 양식이 채택되어진다. 과거나 병리적인 것에 초점을 두지 않으며 폭력경험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역의 개인적인 노출이나 직면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학대과정에서 양쪽 모두가 기여한 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조절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집단원을 돕는다.<sup>39)</sup> 혼성집단은 부부 중 어느 한 쪽 혹은 부부가 둘 다 참석할 수가 있으며 원할 경우 부부는 각기 다른 집단에 참석할 수도 있다.

다음은 피해여성들을 위한 집단으로 피해여성 집단(battered women's group), 동료집단상담(peer group) 그리고 자조집단(self-help group)이 있다. 피해여성 집단의 목적은 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결혼관계의 종식 혹은 유지 시 그들이 받게 되는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낮추고 부족한 대응기술을 가르친다. 특히 지지집단은 회원들 간의 보편성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응집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집단회원들 간에 상호성과 수용을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의 강점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sup>40)</sup>

동료상담집단의 경우 동일한 경험을 한 피해자들 간에서 서로의 경험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하도록 도와주는 집단유형이다. 이 집단은 여성들을 위한 치료집단과 순수한 자조집단의 중간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사회사업가가 이끌 수도 있지만 문제해결집단으로 피해경험자들을 중심으로

38) 권진숙, “배우자학대와 사회사업적 개입,” 53.

39) 이원숙, 『가족복지론』 (서울: 학지사, 2007), 290.

40) 이원숙, “쉼터거주 아내학대 피해여성을 위한 지지집단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2호 (2001): 127.

유지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집단에서 다루는 내용은 새로운 기술, 아이들과의 문제, 두려움, 자원 그리고 개인적 경험에 기반을 둔 전략 등을 함께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많은 피해여성들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집단은 여성들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지지집단과 동료상담 집단은 자조집단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어질 수 있다.<sup>41)</sup> 자조집단(self-help group)도 동일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학대관계에 있는 여성은 그들의 피해와 가해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들 스스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집단 역시 대상은 여성이며 집단역동은 가해자동맹과 유사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인 서비스와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가정폭력피해자나 가해자들을 사정한 후에 대상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기관과 치료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9. 한국의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현황

1980년대에 가정폭력문제가 대두되면서 점차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1983년 한국여성의 전화가 창립되면서 구타당하는 아내를 위한 활동이 전개되었으며, 1987년 마포에 매 맞는 아내의 집이 개설되었다. 1997년에 이르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01년 이후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가정폭력근절 종합대책안이 마련되면서 가정폭력관련대응정책도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시설이나 기관은 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여성1366 그리고 모자보호시설 등 전국적으로 422개소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폭력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학대받는 아내들을 위한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고 예방보다는 피해자

---

41) Ibid.

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이러한 사후대비책은 가정폭력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

장희숙(2008)에 연구에 의하면, 상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의 종류는 1366, 전화상담, 내방상담,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법률구조 서비스, 피해자 대상 프로그램, 행위자 대상 프로그램, 자녀 대상 프로그램,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상담소에서 행위자 대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프로그램 실시 형태는 크게 자체 운영방식, 법원의 상담위탁 방식, 법무부 협력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행위자들은 대부분 법원이나 보호관찰소에 의해 의뢰되고 있으며, 배우자의 권유 또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고하였다.<sup>42)</sup>

행위자 프로그램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보호 관찰소에서는 집단 상담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개별상담을 그 다음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비해 상담기관에서는 개별상담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집단 상담을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보호 관찰소에서는 부부 상담을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담기관에서는 부부 상담을 활용하는 빈도가 꽤 높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상담기관들은 외국에 비해 부부 상담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고 한다. 그러나 폭력행동을 중단하지 않은 시점에서 부부 상담을 하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행위자의 폭력행위 중단에 비효과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폭력의 책임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한편,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가정폭력 행위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상담자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경우가 가장 많고, 자격증으로는 상담관련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며, 대부분 행위자 대상 상담을 2-4회 정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렇듯 가정폭력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훈련과 교육이 요구된다.

42) 장희숙,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행위자 특성 등 조사연구』 (서울: 여성부, 2008), 35.

<표2> 상담자의 전공분야 및 직업<sup>43)</sup>

	상담자의 전공	보호관찰소	상담기관	상담자의 직업	보호관찰소	상담기관
1	사회복지학	36.1	26.8	사회복지사	12.5	10.3
2	상담학	16.7	17.9	가정폭력 상담원	40.6	30.8
3	여성학	-	3.6	대학교수	15.6	23.1
4	심리학	16.7	7.1	심리상담사	15.6	23.1
5	사회학	2.8	-	정신과전문의	9.4	12.8
6	교육학	8.3	12.5	일반상담원	12.5	11.1
7	신학	2.8	3.6			
8	법학	8.3	7.1			
9	신경정신과	-	5.4			

### III. 결론 및 사회복지사에 대한 제언

본 연구는 가정폭력 특히 배우자 학대를 이해하기 위하여 배우자 학대의 유형 및 증상, 학대가 일어나는 역동, 이러한 학대로 제기되는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위기사정에 중요한 요소들과 피해자의 안전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유의할 점을 살펴보았고, 가정폭력 분야의 전반적인 개입의 종류와 경향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가정폭력의 문제가 사적인 문제가 아닌 공공의 관심사, 지역사회 이슈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에선 불과 10여 년째에 접어든다. 가정폭력에 작용하는 이슈들은 크게는 가부장적인 문화,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성문화부터 작게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문제, 부부갈등, 성격적 문제, 분노를 조절하는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게다가 오랜 시간 동안 사적인 일로 치부되던 현실에서 이제 사회의 관심을 받고 관련 전문가들의

43) Ibid., 54.

개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관련 전문가들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가정폭력에 대한 위기개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훈련과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담당 사회복지사들의 위기에 대한 인식과 위기개입기술적 응용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우선, 가정폭력관련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대부분 상담원의 교육을 통해 위기개입기술을 학습할 기회를 가지지만 전문가들의 교육 내용에 있어서 위기개입기술부분이 풍부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기개입기술부분과 교육내용을 더욱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즉, 위기개입 사정도구 활용이나 피해여성지지체계를 조직화하는 기술, 그리고 사후관리 기술 등은 위기개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적으로 역할극 등을 활용하여 가정폭력희생자나 행위자들이 실제상황을 재현해냄으로서 공감의 능력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도 요구된다.

둘째, 가정폭력의 당사자들에게 폭력의 상황은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즉각적인 위기개입은 피해자나 행위자모두에게 폭력의 상황과 공포의 순간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된다. 더욱 위기개입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위기개입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연구결과도 있다.<sup>44)</sup> 따라서 위기개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실제로 폭력의 사회문화적 요인이나 그 영향에 대한 인식교육도 위기개입기술 활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정폭력의 발생과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위기를 올바르게 사정해 낼 수 있는 전문가적 능력과 더불어 쉽게 넘겨버리기 쉬운 힘과 통제의 역동을 파악해내고, 반복되는 학대의 사이클

44) 이인숙, “가정폭력 상담원의 위기개입기술과 영향요인분석,” 218.

을 끊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 문제와 그 개입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을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가정폭력상담이 일회성이 그치는 경우가 많아 학대의 고리를 끊기 쉽지 않다. 따라서 지속적인 개입이 되도록 장기 위기관리체계의 마련과 지역사회단위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관리 체계의 마련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의 문제는 사회복지사, 의사, 법 관련 전문가, 경찰, 지역사회의 기타 다양한 서비스분야 등 다학문적 팀접근이 필수인 분야이다. 전문가로서 사회복지분야 중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지닌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임상적 기술이 이 분야에 적절한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영역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적극적으로 개입되지 못했던 가정폭력의 문제에 병원이나 지역사회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위기개입뿐 아니라 지속적인 장기적 치료에 있어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자료

### 1. 단행본

- 강경호. 『가정폭력의 위기와 상담』. 서울: 한사랑가족상담연구소, 2003.
- 김광일.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서울: 탐구당, 1988.
- 김병주. 『한국의 가정폭력』. 서울: 백산자료원, 2002.
- 김유숙. 『가족상담』. 서울: 학지사, 2003.
- 김재엽. 『한국인의 가족폭력 실태와 양상: 가정폭력 대응전략수립을 위한 대토론』. 서울: 보건복지부, 2002.
- 이원숙. 『가족복지론』. 서울: 학지사, 2007.
- 여성가족부.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2008.

- 장희숙.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행위자 특성 등 조사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2008.
- 정현숙, 유계숙. 『가족관계』. 서울: 신정, 2001.
- 조흥식 외 4인.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2003.
- Ammerman Robert T. and Hersen Michel. 『가족폭력: 사정과 실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회 편역. 서울: 양서원, 2003.
- Hegstrom. Paul. 『가정폭력 치유교과서』. 이남중 역. 서울: 글샘, 2008.
- Kemp, Alan. 『가족학대·가족폭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회 역. 서울: 양서원, 2003.
- Ganley, Ann. and L., Schechter S, *Domestic Violence: A National Curriculum for Children's Protective Services*. San Francisco: Family Violence Prevention Fund, 1996.
- Martin. Grand L. 『가정폭력과 학대』. 김연 역. 서울: 두란노, 2002.
- Pence, E. and Paymar M, *Education Groups for Men who Batter*.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1993.
- Walker, Lenore E. *The Battered Woman*. New York: Harper and Row, 1979.

## 2. 정기간행물

- 김연희 외 2인. “쉼터 입소여성의 배우자에 의한 폭력피해실태와 정신건강.”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2권 1호 (2008): 39-48.
- 김재엽 외 3인.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자의 재폭력이 피해자의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 조사연구』, 19권 (2008): 321-48.
- \_\_\_\_\_.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이수 이후 남편의 재폭력과 피해 여성의 정신건강 실태.” 『한국사회복지 조사연구』, 19권 2호 (2011): 5-30.
- 김선아 외 4인. “가정폭력으로 쉼터에 입소한 여성의 피해실태와 정신건강.”

- 『대한간호학회지』, 33권 7호 (2003): 981-989.
- 이인숙. “가정폭력 상담원의 위기개입기술과 영향요인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7권 (2004): 192-223.
- 이원숙. “쉼터거주 아내학대 피해여성을 위한 지지집단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2호 (2001): 127.
- 장희숙, 김예성. “가정폭력행위자 유형연구: 이론에 따른 세 가지 하위 유형 검증.” 『한국사회복지학회』, 56권 3호 (2004): 303-25.
- Campbell, Javquelyn C. and Lewandowski L. A, “Mental and Physical Health Effect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vol. 20 (1997): 353-74.
- Campbel, Javquelyn C., et al. “Predictors of Depression in Battered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vol. 3 (1997): 271-93.
- Cris, M. S., et al. “Finding from Community-Base Programe for Battered Women and Their Childr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17 (2002): 1075-1101.
- Gleason, W. J. “Mental Disorders in Battered Women: An Empirical Study.” *Violence and Victims*, vol. 8, no. 1 (1993): 53-68.
- Gondolf, Edward W. “Who are These Guy? Toward a Behavioral Typology of Batterers.” *Violence and Victims*, vol. 3 (1988): 187-203.
- Koss, M. “The Women’s Mental Health Research Agenda: Violence against Women.” *American Psychologist*, vol. 45, no. 2 (1990): 374-80.
- Saunders, Danial G. “A Typology of Men Who Batter Women: Three Types Derived from Cluster Analysis.”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62 (1992): 264-75.
- Walker, L. 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Women: Diagnosis and Treatment of Battered Woman Syndrome.” *Psychotherapy*, vol. 28, no. 1 (1991): 21-9.

Woods, S. J and J. C. Campbell. "Post-Traumatic Stress in battered Women: Does the Diagnosis fit?"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vol. 14, no. 2 (1993): 173-86.

### 3. 기타자료

권진숙. "배우자학대와 사회사업적 개입." 1996년, 추계, 한국정신보건사회 사업학회.

김봉화, 김영미. "가정폭력방지 정책의 현황과 효과성 측정을 위한 시론적 연구." 2009, 추계, 한국정책학회.